

### 제 3 강 이스라엘의 언약: 파트 1

#### I.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기초: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들에 달려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엄숙하게 약속하신 것이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언약이라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 계약의 형태로 나타내셨다.

#### A.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5 개의 주요 언약이 있다

1. 아브라함 언약 (백성)
2. 팔레스타인/신명기 언약 (땅)
3. 모세 언약 (율법)
4. 다윗 언약 (왕국)
5. 신약 (하나님의 능력)

#### B.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언약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답을 해 나가면서 파악해 나갈 수 있게 것이다.

1.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2.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3. 이 조항들은 이미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미래에 성취되는가?
4. 이 언약들은 조건부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가?
5. 이 언약 중에 혹시 폐기된 부분들이 있는가?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신학은 이 언약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언약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II. 언약의 성경적 정의

- A. 언약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 '베리트(ברית)'는 '유언' 혹은 '언약' 아니면 '계약'으로 번역되며,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은 사실 적절한 표현이다.
- B. 성경의 언약들 모두가 상호간의 동의의 형태 즉, '만일 네가 그것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의 형태로 맺어지지 않았다. **언약이란 엄격한 성경적인 의미로는 상호간에 지킬 의무를 말하기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약속이자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며, 계약은 항상 상호간에 지킬 의무가 있고,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 C. 언약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으며, 적어도 이 언약 당사자의 일생 동안 이 약속은 유효했다.
- D.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자신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로 서약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이 언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동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
- E. 언약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더 엄숙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 되곤 했다 (창 31:50; 수 9:18; 삼상 20:8; 말 2:14).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창 31:49-50)**

- F. 하나님은 이 언약에 동참하시는 분이 되며, 이 언약을 지켜보는 분이 되시며, 이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된다 (예로 잠 2:17 절에서는 혼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리고 있다).
- G. 만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깨어질 시, 이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으며 이 언약을 깬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도 했다 (수 9:20; 겔 17:12-20).
- H. 선물이 이 언약들의 증거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창 21:30). 또는 나무를 심는 등의 기념물이 증거가 되거나 (창 21:33), 돌 무더기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창 31:52).

- I. 성경에 맺어진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 1.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예를 들어 결혼, 잠 2:17; 말 2:14)
  - 2.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 (수 9:19; 삼상 11:1; 겔 17 장)
  - 3.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 III. 고대에 언약을 '자르는' 데 있어서 나타난 요소들

#### A. 준비

언약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언약 관계는 많은 기도와 조언, 깊은 생각을 한 후에 맺어졌다 (비교. 수 9 장,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일)

#### B. 증인

증인은 언약 당사자 양측이 신뢰하는 중재자로 선정되었다. 언약은 어떤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다. 그 중요도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그 증인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 (삼상 20:42). 어떤 때에는 하늘과 땅이 그 유일한 증인이 되는 때도 있었다 (신 4:26; 30:19; 31:28).

#### C. 희생/피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반으로 갈라 언약 당사자들이 동물을 둘로 가른 가운데 서 있곤 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이 동물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할 것을 뜻하는 일이었다 (창 15:9-21; 렘 34:18-19).

상호간의 언약에 있어서는 언약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손목에 칼로 상처를 낸 후 손을 들어서 맞잡아서 하늘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이 상호간의 결정의 증인으로 삼았다. 여기서 피가 서로 섞이는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됨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상처를 뜨겁게 달궜진 쇠로 지짐으로 피부에 명확한 흔적을 남겼고, 이는 그들이 영원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 D. 이름을 주고받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종종 이름이 서로 교환되어서, 서로를 "B의 친구 A"라는 형식으로 부르곤 했다. (예: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다, 대하 20:7, KJV 흠정역 참조; 사 41:8; 약 2:23).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셨다 (민 6:27; 삼하 7:31; 왕상 9:3).

E. 모든 재산과 의무와 책임 목록을 주고받음

언약을 맺은 연합된 두 당사자는 서로의 소유를 나누거나 짐을 나눠 지곤 했다 (비교. 창 14:18-20)

F.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음 (신 28 장)

G. 표식

이는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나무 (창 21:33), 돌 무더기 (창 31:52), 할례 (창 17:11), 기념일 (출 20:8), 노래 (신 31:19) 등 여러가지가 있다.

H. 빵과 포도주를 통한 언약 만찬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창 14:18; 마 26:28; 막 14:24; 눅 22:20; 고전 11:25).

## IV.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으로는 첫째,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써 영원히 존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 둘째,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 언약의 약속과 내용들은 창세기의 다섯 군데 구절에 나와있다.

창 12:1-3; 7: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주신 언약

<sup>1</sup>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sup>2</sup>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sup>3</sup>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sup>7</sup>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 12:7)

창 13:14-17: 롯이 떠난 이후 주신 언약

<sup>14</sup>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sup>15</sup>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sup>16</sup>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sup>17</sup>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3:14-17)

창 15:8-21: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심

<sup>8</sup>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sup>9</sup>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sup>10</sup>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sup>11</sup>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 15:8-11)

<sup>12</sup>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sup>13</sup>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sup>14</sup>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2-14)

<sup>15</sup>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sup>16</sup>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sup>17</sup>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sup>18</sup>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sup>19</sup>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sup>20</sup>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sup>21</sup>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 15:15-21)

창 17:1-21: 아브라함이 99 세 때 하신 약속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됨)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 17:1-21)

창 22:15-18: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심 (22 장 초반에 이삭을 바치라고 먼저 부르셨음)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5-18)

## V.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

A.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육신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맺어졌다 (창 15:18; 17:4, 6-8, 19).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7)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19)

B.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약속하신다 (창 26:1-4).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 언약을 다시 약속하신다 (창 28:10-14; 35:9-12; 48:3-4).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생의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도 맺어진 것임을 볼 수 있다 (창 50:24-25).

## VI.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크게 세 대상을 향해 약속하고 있다.

### A.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약속들

1.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그가 다른 이들의 복이 되게 하심 (창 12:2)
2.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심 (창 12:2)
3. 그에게 많은 육신의 자손을 주심 (창 13:16; 15:4-5; 17:6)
4.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 (창 17:4-5)
5. 그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심 (창 13:14-15, 17; 15:7; 17:8)
6.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이를 저주하심 (창 12:3)

### B. 이스라엘 국가(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국가적인 약속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다 (주님은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를 통해서가 아닌, 이삭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명확히 하셨다, 창 17:21)

1.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임 (창 12:2)
2.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임** (창 12:7; 13:14-15; 15:18-21; 17:8)
3.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심 (창 17:7, 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스라엘 나라)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과,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서 영원히 멸절되지 않을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일도 불가능해지며, 아브라함 언약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 C. 전 세계를 향한 약속들

이 약속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창 12:3; 22:18; 28:14).
2.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들이 복을 받으며, 저주한 이들이 저주를 받음 (창 12:3).

## VII. 이 약속들은 이미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미래에 성취되는가?

### A. 아브라함 언약은 일부 이미 성취되었다

#### 1. 개인에 대한 약속들

- a.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부와 여러가지 축복을 주셨다 (창 24:1, 35).
- b.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셨다 (예로, 아브라함이 잡혀 있던 롯을 구출함, 창 14 장).
- c.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다 (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 d.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으며,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국가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형성되었다; 몇몇 아랍 국가는 그로부터 시작해 이스마엘을 통해 형성되었다).

#### 2. 국가적인 약속들

- a.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 b.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신 31:7-8; 32:45-52; 수 1:1-5, 10-11).



c. 이스라엘은 국가로서는 없어진 적이 있지만, 민족으로서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 3. 전 세계를 향한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 유대인이셨으며,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고전 15:1-4; 딤후전 2:5-6; 히 2:9; 요일 2:1-2).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다 (요 4:22).

a.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 선지자들과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롬 3:1-2).

b.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들을 심판하셨다.

### B. 아브라함 언약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언되어 있기에, 이는 적어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창 17:8).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 땅을 주권적인 국가로 소유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전체 지역을 다 소유한 적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된 적도 없다.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창 17:7, 19).

아브라함 언약 중에 이미 성취된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언약의 일부만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언약의 나머지 전체도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 VIII. 이 언약은 조건부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지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셨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 A. 조건부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차이

만일 어떤 언약이 조건부적이라면, 이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만일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쪽 언약의 당사자도 언약의 의무와 약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만일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부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언약에 약속된 조항들은 무효가 되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게 되며,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모든**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실지의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 이는 이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필히 성취될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이 나라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게 된다.

## B. 이 언약이 조건부적인 언약이라는 주장

### 1.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달려있다는 주장

<sup>1</sup>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sup>2</sup>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 17:1-2)

### 2.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주장

<sup>16</sup>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sup>17</sup>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sup>18</sup>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6-18)

C. 이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인 이유

1. 소위 “조건”이라는 부분은 언약이 세워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생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약이 일단 세워지면,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지 못함을 설명했다.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갈 3:15)**

2. 언약이 공식적으로 세워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반으로 가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이를 할 수 없었다 (창 15:8-18). 언약은 당사자 양쪽 모두가 동물들 사이를 지나갔을 때에만 양쪽 모두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아브라함 언약의 경우는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게 되며,** 아브라함의 어떠한과는 관련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반으로 가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서약하셨다.
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창세기 15 장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신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한지, 순종하는 지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4.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창 16, 20 장, 비교. 창 26:1-4; 26:6-11; 28:13-15; 35:9-12; 48:3-4; 37:18-36; 38:12-26; 50:24-26; 출 2:24; 6:2-8). 만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떠한에 달렸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5. 이스라엘이 몇 세기 동안 죄를 범한 이후인 다윗 왕 때에도, 다윗은 아브라함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대상 16:15-18)**

만일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었다면,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하지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6.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이 미래에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25 네가 ...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 31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 4:25-31)

이 약속은 이스라엘 국가와 맺어진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 관계가 있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7. 성령님께서서는 신약의 시작점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통해 예언하실 때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확증해 주신다.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눅 1:68-75)

8. 여기서 구원자가 오시는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이다.

만일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부적인 것이었다면, 구원자가 오시거나 구원이 부여되는 것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순절에 성령이 부여된 일은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 언약이었음을 보여준다.

- 9. 유대인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을 근거로 설교하는데, 이는 이 약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에게 유효하며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행 3:19-26)

- 10.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언약이 여전히 변함없음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언약에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6:13-18)

**IX.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결과**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A.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선포하셨다 (창 17:7). 언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다.
- 2.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이 모세는 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을 근거로 기도했다.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 32:13-14)**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결코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31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 4:31)**

B. 약속의 땅은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1.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에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그들의 육신의 자손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과 관련이 없음), 그리고 이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중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는 것이기에 (**창 12:7; 13:14-15; 15:18-21; 17:8; 대상 16:15-18; 시 105:8-11**), 이스라엘은 영구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2. 이스라엘이 이 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항상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으며,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지는 조건적이며, 이는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다 (레 18:28; 26 장; 신 28:15-68 절 등).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조건적인 언약인 신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새로운 언약인 신약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그 땅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유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사 60:21)**

이 구절과 또 다른 약속들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아브라함 언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